

서여대협 2차 모임

언제 :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4월 25일 늦은 7시
어디서 : 경희대 총여학생회실

◆보고 안건

단위 상황 보고(사업과 투쟁, 조직생활, 사상생활)
전여대협 중상 보고
대학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가) 관련 보고
선거연구모임
학칙 연구사업 보고
전여대협 강규개정 소위 활동 보고
유인물 관련
농활 토론회 관련 보고 및 단위 농활 일정 및 준비 상황 총화

◆논의 안건

34월 평가 및 5,6월 계획 논의
전여대협 출범식 준비
서여대협 모임 정리화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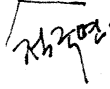
전여대협 분담금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 반성폭력 운동의 전환을 위한

40일의 비상

- 전여대협 5, 6월 사업계획 -



발신 : 8기 전여대협 중앙상임위원회
수신 : 8기 전여대협 각급 단위 여학생회

0. 들어가며

2002년을 맞이한 지 이제 100여 일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해 말부터 전여대협은 '6·15 공동선언 이행·여성해방 토대구축을 위한 50일 행군'을 진행하면서 2002년을 힘차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월말 총회를 열어내어 2002년을 "전여대협의 새로운 결심!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닦아, 여성노동권 확보 투쟁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성폭력 운동의 전환적 국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해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3, 4월을 맞아 개강사업과 3·8 세계여성의 날 투쟁, 3·13 수요집회 등을 예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였으며, 총여학생회 출범식 또한 여러 대학에서 성과있게 진행하였습니다. 3, 4월 사업과 투쟁의 과정에서 여러 모범들도 창출되었습니다. 경산대에서 이동 총여학생회를 진행하면서 학우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로 많은 학우들을 만난 것이나, 울산대, 광주대에서 소모임 주체를 중심으로 소모임 성원 모집을 잘 진행하고 안정적으로 모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경산대에서 여성문화제를 준비하면서 단대/과여 부장들과 기획단을 구성하고 자원단을 단위에서 꾸리고 함께 준비했던 모범, 소모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모범 등 그 외의 대학에서도 많은 모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한계지점들도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총여학생회에서 1년의 장기적인 전망과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때때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 4월 시기를 규정하는 데 있어 여러 사업과 투쟁들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기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다그쳐가는 것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여학일꾼들이 대표자를 중심으로 조직생활을 결속력있게 진행하는데 상당히 부족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3, 4월을 거쳐오면서 일정한 모범과 일정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채 5,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 4월에 대한 평가에서 도출된 모범들은 일반화하고 나섰던 과제들은 극복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 6월을 맞는 전여대협은 '모범은 따라배우고, 과제는 혁신해가자!'라는 단순한 결심으로만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이 예년과 달리 2달이나 빠르게 그 속도를 붙이고 있고, 5,6월 시기에 <아리랑>과 <6·15 민족통일대축전>이라는, 7천만 민족의 의지를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로 확고하게 모아나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어 있기에, 5,6월을 맞는 전여대협의 결심과 행동은 그만큼 비약적으로 높아야 합니다.

점점 높아가는 학우들의 요구에 따라 반성폭력 운동을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높은 수준에서 훨씬 대중적으로 진행해야할 현제가 있어, 5,6월을 맞는 전여대협의 각오는 그이말로 여학우들의 고통받는 삶에 대한 절절함이 심장속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일꾼들 개개인이 자신의 사고와 활동에 있어서 대담하게 비상하고자 결심하는 것, 그리고 총여학생회 차원의 조직적인 결심으로 대학 여학생운동에 대한 사고와 수준을 물라볼 정도로 끌어올리고, 여학우들을 사업과 투쟁에서의 진정한 주인공체로 세워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뒷대수는 각오를 하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 반성폭력 운동의 전환을 위한 40일의 비상!!

모든 것을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정세의 요구, 여성민중의 요구에 맞추어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I. 40일 비상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6·15 공동선언의 요구대로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진민족적으로 성사해내는데 전여대협의 결심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두배 세배의 역할을 해내기 위함입니다.

올 초 이북이 3대 호소와 3대 제의를 해오고 이에 대해 이남의 민족민주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민족은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만들어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왔습니다.

5, 6월 시기 <아리랑>과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계기로 칠천만 겨레의 통일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염원하는가를..."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평화 애호, 통일염원을 전 세계 만방에 알려, 약의 축이나 핵공격이나 확전이나 돌격이며 전쟁에 광분하는 부시와 미제국주의에 타격하고, 반공반북의식을 연공연북의식으로 전환시키고 민족대단결 의식을 비약적으로 높িয়ে 될 것입니다. 하기에 눈물 속에 흘려진 온 민족이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큰 잔치인 <아리랑>에 대한 전면적이며 전면적적인 관람사업을 통해 7천만 민족의 의지를 민족자주, 민족대단결로 확고히 지향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아리랑>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 우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열어내게 될 것입니다.

8·15가 미원의 독립, 미원의 해방이었다면 6·15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과 진정한 해방을 선언한 날인 것입니다. <아리랑>을 계기로 한 전면적인 왕래와 교류에 기반해 <6·15 민족통일대축전>으로 성과를 1차적으로 결속 짓고 그 힘으로 8·15 민족공동행사를 향해 내달려 가야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전여대협은 예년보다 2달이나 빠른 조국통일의 흐름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하게 성사하는 것을 정점으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여대협은 여성민중들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의식을 높여내고 여성들의 조직적인 결속으로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준비해가는 데서 응당의 몫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며, 두배 세배의 역할을 해내어야할 것입니다.

둘째, 반성폭력 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일기 위한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반성폭력 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자"

총기처에서의 이 같은 구호는 이전까지의 반성폭력 운동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것, 학내 성폭력을 더욱 일상적으로 근절해나가기 위해서 더욱 구체적인 여학우들의 삶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만들어가는 것을 일컬음이었습니다. 바로 반성폭력 운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대중적인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나가는 요구였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반성폭력의 내용을 중심으로 들고 학내 성폭력과의 싸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수준이 아직 반성폭력 운동의 '전환적인 국면'을 만들어가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보다 반성폭력 자보 한 장 더 내는 수준에서 '전환적인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라는 잣대는 전여대협 50만 여학우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이말로 '새로운 결심'으로 완전히 다른 대중운동의 형태와 방법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결심에 맞는 운동의 형태와 방법 창출, 그것을 토대로 성폭력에 대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진행하고, 그래서 학우들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켜갈 때 반성폭력 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환적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면서 반성폭력 운동의 장기적 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폭력에 대한 의식화 사업이 전 대학에서 진행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어도 낮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식화 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셋째, 총여학생회가 진정 대중조직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총여학생회의 현재적 모습을 돌아봅시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의 모습과 방식대로 되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의 현재적 모습은 대중조직다운 면모를 갖추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총여학생회의 '대중조직다운 면모'란 무엇인가?

총여학생회의 사업과 투쟁이 학우들의 지주적 이해와 요구에 의해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대의체계를 중심으로 학우들을 사업과 투쟁의 주인공체로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대중운동의 원칙과 흐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여학생회 일꾼들이 대중 속에 산 간부가 되기 위해 부단히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그렇게 되면 좋겠지...'라고만 생각할 이상향이 아닙니다. 총여학생회가 대중조직다운 면모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해 가는가 하는 문제는 여학우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총여학생회가 대중조직다운 면모를 갖추어나가는 속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II. 40일 비상(5월 6일~6월 15일)

전여대협 출범식이 끝난 직후인 5월 6일부터 대학별 총여학생회 핵심대중사업을 거쳐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개최되는 6월 15일까지 40일간의 비상을 열어봅시다.

III. 정세전망

- 정세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IV. 40일 비상상의 구체적 목표

1.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하자!

1) <아리랑> 관람사업

1) <6·15 민족통일대축전 여성준비위> 결성 및 <6·15 민족통일대축전> 여성마당 성사

- 대학별 / 지역별 여성준비위 결성

2)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61500 여학우 선언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자!

- 대학별 목표

2. 반성폭력 운동의 진환

1) 반성폭력에 대한 의식화 사업의 획기적 전환

2)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장기적 전망 수립과 주체역량 강화

3) <전국 대학생 성인식 설문조사> 및 분석 진행

3. 대중조직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가자!

1) 조직적, 개인적 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과감한 비상을 전개하자!

2) 40일 비상상의 요구성에 맞는 사상운동을 전개하자!

3) 소모임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과외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자!

4) 총여학생회 대동제(여성문화제/여성주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학우들의 자주적 요구와 직접적 참여를 중심으로 사업 방식의 질적 도약을 통한 정형 창출

V. 조직사상적 과제와 방도

개강을 한지 2달,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선거시기 학우들과의 약속을 언제나 가슴속에 새기고, 방중동안 계획했던 목표를 차근차근 잘 실행해 가고 있는지 차분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으로 살아가자고 결의했던 8기 전여대협의 총기치, 총노선의 방향대로 즐기차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현 시기 정세의 요구를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5. 6월 새롭게 결심하고 과감하게 비상합시다

1. 전여대협 5.6월 사업계획서를 깊이있게 토론하고 반드시 대학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자.

정세의 요구, 운동발전의 요구 속에서 매시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단위에서 깊이있게 토론하고 단위의 실정에 맞게 녹여내어 단위의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조차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전여대협 5.6월 사업계획서를 깊이있게 토론하고 단위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수립합시다.

2. 새로운 결심으로 과감하게 비상하자.

① 개인적 비상

향기나는 일꾼, 그 실현을 위하여!

- 생활, 학습, 투쟁의 비상을 위해 개인의 혁신과제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결의서를 작성합시다.

: 개인의 혁신과제를 세우는데 있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높이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면 630투쟁이나 700투쟁으로 목표를 잡는다든지, 학습에 있어서 매일 30쪽 읽기, 혹은 2시간 학습하기 등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적 혁신, 조직적 혁신과제를 잘 수행하였는지 매일 주체총화서를 작성합시다.

② 조직적 혁신

전투적인 조직생활, 그속에 여성민중의 미래가 있다!

- 조직생활을 강화합시다.

조·총례시수, 회의의 안착화는 기본입니다. 이를 성과있게 진행하고 승리적으로 총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집단적 목표를 세웁시다. 예를 들면, 현재 아침생활이 보장이 안되고 저녁에는 분공을 다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집에 빨리 가버린다면은 8시 조례, 9시 총례와 같이 잡고, 그속에 무슨 내용을 채워넣을 것인지 요일별로 계획해보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0일 비상을 위해 조직적 목표를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합시다.

- 주총화대회를 반드시 진행합시다.

평가사업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결의높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한주의 계획이 잘 집행되었는지 비상과제가 결사관철되었는지 조직적, 개인적 총화와 평가를 진행합시다. 그리고 모범도 총화합시다.

성과와 한계, 원인을 잘 짚어내고 다음주를 결의합시다.

3. 40일 비상 대리로 일고 가슴으로 느끼며 온몸으로 실천합시다.

① 6.15공동선언, 6.15민족통일대축전과 반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대해 깊이있게 학습하고 토론을 진행합시다. (교양자료추후 제출)

② 대중조직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 '자주적 여학생운동론'과 '자주적 사업방법과 민중적 사업작품'에 대해서 학습하고 토론을 진행합시다. (교양자료 추후제출)

4. 소모임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합시다.

학교마다 소모임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조직화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소모임 활동을 안착화시키고 본격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진행합시다.

①소모임 구성원들과 정기 모임 일정을 정하고 그 약속은 무슨일이 있어도 지키도록 합시다.

②일상적인 만남과 대화속에서 언제나 여성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아냅시다.

새내기들이 입학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처음의 어색했던 분위기는 없어지고 친분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즈음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친분으로 묶였던 새내기들의 의식이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되지 않을때에는 그 소모임은 지속될 수 없고 결국 사람을 남길 수 없게 됩니다.

소모임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리고 일상적으로 만나면서 여성문제에 눈을 뜰수 있도록 의식화 합시다. 새나기들의 눈으로 새나기들의 생활속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꺼리를 찾아 대화를 나눠봅시다. 또한 새나기 한명 한명의 개인적인 고민까지 총화하고 풀어주면서 신뢰를 쌓아갑시다.

※아직 소모임 조직화가 대중적으로 되지 않은 학교는 또 다른 방도를 고민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세워진 과여부장들을 소모임으로 묶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여부장들은 과에서 여학우들을 묶어내기 위한 사업을 벌여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지만 실제 과여학생운동이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기반을 다지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과여부장들에게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목적의식을 높여주는 방도로써 소모임으로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여부장들로 소모임을 구성할때는 학습소조형식으로 학습과 토론을 중심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묶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재를 설정해서 소모임을 만들 경우에는 그 소재와 관련된 실천활동은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해야 좋겠습니다. 영화보거나 문화비평 같은 소재로 해서 소모임에서 토론하고 과에서 풀어낼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5. 과간담회와 과여학생부 건설을 그치지 말고 진행합니다.

①목표와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해봅시다.

기층을 세워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학교마다 과에서 여학생주체를 세워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처음의 목표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면 그 성과점을 사업에서 극대화시키고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한번 고민해 봅시다.

②과간담회는 1년 내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과간담회의 기본내용은 여학생운동, 우리사회·우리학교·우리과 내의 여성문제, 여학생회의 필요성, 과여학생부 건설에 대해서 기층과 이야기하고 여학생회에 바라는 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층을 직접 만나는 아주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과간담회는 1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과를 어떻게 만날지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과에서 여학생운동 주체를 발굴해 내는 과정을 지지지 말고 끈질기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설사 과에서 주체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획대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간담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③대중사업을 계기로 과간담회를 더욱 내실있게 진행합니다.

5월은 학교마다 대중사업과 몸동활이 있습니다. 과간담회 속에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여학생회 대중사업과 농활 분반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과에서 주체를 마련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사람을 남기는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계기와 조건을 잘 살려갑니다.

6. 과여학생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합니다..

①과여학생부를 일상적으로 챙겨봅시다.

과간담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주체까지 세워놓고는 이제 다 끝난 마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우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작은 세워진 과여학생부장들은 애정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자세히 듣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면서 과여학생부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②총여학생회 대중사업을 계기로 과여학생부장들을 총여학생회 두리로 묶고 총여학생회의 사업을 과에서 적극 풀어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③과의 대중사업속에서 과여학생부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5월에는 과에서도 대중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과여학우들과 함께 할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도록 지도합니다.

※5월 시기 과학생회 대중사업 속에서의 과여학생부의 사업(예)

- 먼저 과학우들에게 의견수렴을 합니다.

과여학우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우들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히 과학육대회때는 여학우들이 소외되고 기껏해야 응원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학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여학우 돼지잡기 대회, 팔씨름, 고무줄 놀이, 발아구, 피구 등이 있겠죠?

-성역할을 바꿔하는 놀이도 좋을 것입니다.

남학우 과일깎기, 여학우 팔씨름 대회등...

-양성평등한 과를 만들어보자는 내용으로 여학우들과 함께 행사장 주변 선전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여성문제들과 그 외에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면 좋겠죠?

-그 외에도 영화제나 강연회, 토론회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행사 중에 여성차별적인 것이 있다면 과학생회 회의속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강제해야하겠죠?

⇒ 그 밖에 일상적인 과여학생회(부)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 8기 전여대협 총노선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여학생회(부)를 지도사업 할 때 반드시 참고합니다.

VI. 대중투쟁의 과제와 방도

40일 비상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내는 방향에서 <아리랑> 관람사업 성사, <6·15 민족통일대추진> 성사로 빠르게 달려가기 위하여 제기된 것입니다. 또한 반식폭력 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내기 위한 토대를 쌓는 방향에서 반식폭력 운동의 장기적 전망을 수립하고, 주체역량을 강화하면서, 의식화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투쟁과제들을 중심으로 대학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투쟁들을 맞추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1)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4월 3일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기점으로 우리 민족은 현재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호조건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복은 울췌 3대 호소와 3대 제의를 해오면서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기점으로 삼아 미국과 반통일세력이 아닌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 민족대단결로 지향되는 7천만 민족의 의지입니다. 7천만 민족의 의지를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로 어떻게 확고히 지향시켜갈 것인가가 정세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5, 6월 시기 <아리랑>추진과 <6·15 민족통일대추진>이 있습니다.

5, 6월 시기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얘기되는 <아리랑> 관람사업과 <6·15 민족통일대추진> 성사를 단지 하나의 사업으로 고민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아리랑> 관람사업부터 <6·15 민족통일대추진>까지 일련의 흐름을 관통해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다그쳐가야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랑> 관람을 여성단체와의 연대사업과 여학우들의 조직화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면서, 그와 동시에 <6·15 민족통일대추진 여성준비위>를 광범위하게 결성해야합니다. <아리랑> 관람사업을 통해 여성준비위를 더욱 공고화 및 확대하면서 <6·15 민족통일대추진>으로 그 성과를 모아 나가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성준비위 차원에서 준비한 <6·15 민족통일대추진>을 성사한 이후에는 더 많은 여학우, 여성민중들에 대해 더욱 전면적인 의식화, 조직화를 진행해 <7·15 남북여성통일대회>로 여성들의 조직적 결속력을 높여낼 것입니다.

① <6·15 공동선언 이행,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61,500 여학우 선언>을 전국적으로 진행합니다.

- 대학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여학우 선언>의 진행 정도를 전여대협, 한총련 홈페이지에 총화합니다. 또한 학우들이 <여학우 선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총화판을 마련해 대중적으로 총화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전체 여학우들이 1만 명인 대학은 6150명의 여학우들이 선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주별 목표, 간부별 목표 등을 세워 이를 실현해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총화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② <아리랑>부터 <6·15 민족통일대추진>까지의 대학별 흐름과 계획을 세웁시다.

전여대협 출범식 때까지 대학별 계획을 마련합니다.

- 연대단체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아리랑>에 대한 의식화를 진행하면서 <아리랑> 관람사업, 학내 각종 사업 등에 조직화합니다.

- 전여대협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대학들도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식 때부터 조금씩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며, 6월초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가)>에서 진행할 통일 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리랑> 관람단 사업을 대학별, 지역별 흐름에 맞게 가져갑시다.

영남대 총여학생회의 경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하여 과여부장들의 <아리랑> 관람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변에 선전물을 부착해놓고 학우들에게 알려내면서 과여부장들과 함께 바둑그림 그리기를 진행하고, 과여부장들의 <아리랑> 관람 사업을 위한 주막을 과여부장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③ 대학별, 지역별, <6·15 민족통일대추전 여성준비위>를 빠르게 건설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성민중들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의식을 높여내고 여성들의 조직적 결속으로 <6·15 민족통일대추전>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별로 여성준비위를 빠르게 건설해냅니다. 또한 지역별 여성준비위를 결성하는 데 있어 여학 단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6·15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서 여성단체와의 연대사업을 진행합니다.

④ 의식화 사업을 톱코고 대담하게 전개합니다.

- < <아리랑>과 <6·15 민족통일대추전>에 대한 선전 홍보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아리랑>과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진행과정을 선전해나가면서 학우들의 의지를 더욱 불러일으킵시다.

- 대학별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월수금 여성마당>과 같이 정기적이고 톱코며 즐거운 의식화사업을 만들어가 봅시다.

<아리랑>과 <6·15 민족통일대추전> 뿐만 아니라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전반내용을 정기적이고 톱코며 학우들이 참여하는 의식화사업으로 풀어나갑시다. 예를 들면 점심 혹은 저녁 실천활동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월수금 여성마당>을 즐거운 선전전과 재미있는 소문화제, 선전거리, 서명운동, 뜻 있는 기념품이나 학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나눠주기 등을 함께 진행하는 식으로 입체적으로 학우들을 의식화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⑤ 반미반전 투쟁

- 4·19 - 5·18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반미반전평화주간>을 중심으로 반미반전 투쟁을 펼쳐갑시다.

미국의 계속적인 호전적 움직임과 그에 따른 여성들, 민중들의 피해에 대해 선전해내면서 전쟁반대의 내용으로 의식화를 진행해갑시다.

- <6·15 민족통일대추전> 때까지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망라해 6·15 공동선언 이행, 반미반전의 내용으로 여성단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반통일세력 척결 투쟁

-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주적론 철폐 투쟁

-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투쟁

2)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한 반가부장제 투쟁

5, 6월 시기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면서 반성폭력 운동의 장기적 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폭력에 대한 의식화 사업이 전 대학에서 진행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어도 낮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식화 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1) < 전국 대학생 성인식 설문조사 >

반성폭력 운동을 더욱 대중적이고 전일적이며 전환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국 대학생 성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각 대학별로 가능한 목표를 잡아서 계획성있게 진행합니다.

- 시기 : 1차 대학별 총여 핵심사업 (대동제, 여성문화제, 여성주간 등)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진행

2차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대학별 상황에 맞게 진행

- 방법 : 기본적으로는 총학생회, 단대학생회, 과학생회와 단대 여학생회(부), 과여학생회(부)의 대의체계를 발동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총여학생회 실천활동으로 함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 내용은 추후 제출

② 반성폭력에 대한 의식화 사업의 획기적 전환

반성폭력 운동은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내는 투쟁이므로 의식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는 의식화 사업이 단편적이거나 일방적, 상투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식화를 진행하는 것이 성폭력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이 성폭력에 대해 인식, 분노하고 이를 자신의 실천으로 외화하며 궁극적으로 조직화로 성과를 이어가는 의식화로 진행되게 하려면 의식화의 내용과 방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식화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을 하기 위한 몇가지 방도> (전여대협 3,4월 사업계획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식화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의식화 사업의 생명입니다.

의식화 사업을 일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우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학우들의 의식을 상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식화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식화 사업의 지속적이고 일정한 방도를 마련해 이를 강제합니다.

- 의식화를 학우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으로 만듭니다.

기간 의식화 사업이 어느정도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식화를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화사업을 학우들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며 학우들의 인식을 점차적으로 상승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생활문화운동을 대학에 맞게 진행합니다.

: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거나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 인터넷은 학생회가 책임져야할 중요한 의식화 공간입니다.

인터넷의 공간은 무한하고 학우들의 중요한 생활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간 인터넷 선전에 대해 주목을 돌려왔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만들고, 일정하게 관리를 해가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총여학생회의 또다른 얼굴이며, 사이버 상의 총여학생회실입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홍보하며 사이버 상의 총여학생회실에 더 많은 학우들이 올 수 있게 만듭니다.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다보면 결국 1년이 지난 후에도 홈페이지는 만들지 못합니다. 올해에는 꼭 홈페이지를 만들어 학우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왕이면 바쁘지만 3, 4월 시기에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가 있어도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우들이 홈페이지에 들렀다가도 실망하고 다시는 오지 않게 됩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새로운 자료와 내용을 채워나가며 정성을 들이다 보면 더 많은 학우들이 모일 것입니다.

: 그 외 대학에 맞게 인터넷 선전을 강화합니다.

- 과에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무작위 대중만을 대상으로 의식화 사업을 하는 것을 넘어 차차 구체적인 과학우들을 대상으로 의식화 사업을 만들어 갑시다.

- 의식화를 다양한 방도로 진행합니다.

자보, 플랑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선전물을 고민하고 만들어 갑시다. 또한 대중적인 방도로 학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의식화 사업에 대한 고민을 더 한층 높게 진행합니다.

②-1 대동제, 체육대회 등을 계기로 반성폭력 운동, 반가부장제 투쟁을 만들어갑시다.

대동제, 체육대회 등 과, 단대, 총학생회 사업이 집중적으로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수많은 대중사업이 집중되다보니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자리문화입니다. 실제로 학내 성폭력이 이 술자리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에 술자리에서의 성폭력, 기부장적 술자리문화 등에 대한 생활문화운동 등 의식화사업을 진행합니다.

②-2 총여 대중사업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확산합니다.

5월에는 대동제, 여성문화제, 여성주간 등 다양한 형태로 총여학생회의 주요대중사업이 펼쳐질 것입니다. 반성폭력의 내용을 총여 대중사업 속에서 다양하고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③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장기적 전망 수립과 주체역량 강화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여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을 가져나 갑시다.

- 이와 관련된 참고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④ 성상품화, 성매매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식화도 진행합니다.

그동안 여성운동의 성과로 올해부터 미스코리아대회가 공중파방송을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월 19일에 미스코리아대회는 진행될 것입니다. 학우들 속에서 미스코리아대회가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이란 데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으리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스코리아대회 반대를 계기로 여성의 성상품화 반대를 얘기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차원을 넘어서 미스코리아대회를 비롯해 여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의식화하면 좋겠습니다.

- 올림픽이 매춘올림픽으로 불리었던 것처럼 월드컵이라는 국제행사를 빌미로 성매매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한 의식화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⑤ 반성폭력 학칙 연구사업

- 4월말까지 총화된 각 대학의 학칙(안), 학칙의 문제점,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5월 중순까지 전반적인 학칙의 문제점을 분석할 것입니다.
- 분석된 전반 학칙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각 대학별로 5월말까지 진행하고, 토론회의 내용과 결과를 <전여대협 반성폭력 학칙 연구사업 카페>로 총화합니다.

3) 여성노동권 확보 투쟁

정부는 오는 7월 이전에 '주5일제 근무'를 반드시 성사시키고야 말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에는 주5일제 근무를 위해 주휴일, 생리휴가를 무급화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6일 일하고 7일분의 임금을 받던 것을 주5일 근무제가 되면 5일분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리휴가까지 무급화 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2007년 7월 이후에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됩니다.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까마득한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구나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세 상업·서비스 업종은 2007년에도 '주5일' 실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주휴수당, 생리수당을 없애려는 것은 노동법을 개악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름뿐인 '주5일 근무제'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뿐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방지한 주휴일·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법 개악을 반대합니다.

(1)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의식화사업을 진행합니다.

- 여성노동자의 현실
-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전반내용

(2) 여성노동자들과 연대사업을 진행합니다.

(3) 추후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교양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5월 둘째 주 예정)

4) 여성의 정치세력화 투쟁

-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반 투쟁의 방향과 계획은 전여대협 선거연구모임을 진행한 후 한총련 출범식에 즈음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 대학별로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학습 및 토론회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대학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마련합니다.

학습자료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겠습니다. 토론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론과제 : 여성의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 / 기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각종 움직임에 대한 약평 /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 진보정당과 여성운동의 관계 / 올해 양대 선거투쟁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과 활동은 어떻게 되어야할 것인가 / 양대 선거투쟁에 있어서 전여대협의 역할과 활동은 어떻게 되어야할 것인가

5)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침략사를 미화하고 심지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기술한 고등학교 교재 『최신일본사』를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4월 21일 고이즈미 일 총리는 애초의 발표와 다르게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아스쿠니신사의 불 대체에 참석해 기술적으로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투쟁해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지금까지도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여대협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동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덧붙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5월초 이북에서 남, 북, 동남아시아 피해국가들이 모여 포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의식화를 진행합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고이즈미의 신사참배 등을 반대하는 내용

특별법의 중요성과 특별법 제정 추이에 대한 내용

이북에서 열리는 포럼과 '위안부'문제 남북공동해결에 대한 내용

과거 반성과 사죄없는 월드컵 한일공동개최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 등

6) 연대사업

① 여성단체들과의 연대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6·15 민족통일대추전 여성준비위>로 결실 지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의 내용을 여성단체들이 합의하고 함께 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진행합니다.

③ 봄농활, 여름농활을 계기 삼아 여성농민들과의 연대사업을 진행합니다.

- 여름농활 계획서는 5월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VII. 핵심사업

1) 전여대협 출범식

- 출범식 계획서는 따로 제출합니다.

- 전여대협 출범식은 40일 비상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40일 비상은 목전에 두고 40일 비상을 시작하는 데 있어 전여대협이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하고 의지높게 결의하는 장으로서 전여대협 출범식을 성사합니다.

2) 학교별 총여 대중사업 - 대동제, 여성문화제, 여성주간 등

총여학생회의 핵심대중사업을 통해 40일 비상 내용을 핵심적으로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고, 사업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질적 도약해 대중조직단계 대중사업을 만들어내봅니다.

① 내용과 방식

- 반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반가부장제 / 6·15 공동선언 이행의 내용을 기본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학별 상황에 맞게 여성노동권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여성문제의 내용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방식에 있어서 다양하고 참신한 여러 형태로 진행할 것에 대한 고민을 높여냅니다. 이를 위해 대학별로 대동제, 여성문화제, 여성주간 등의 구체적인 기획안과 준비 계획서를 반드시 통신회합합니다.

② 대중운동의 정형 창출

5월 대중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대학별 기풍에 맞게 대중운동의 흐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대중운동의 정형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만들어냅니다.

- 총여 여성문화제 계획서에서 기획관 뿐만 아니라 기층 여학일꾼들, 소모임, 단대 학생회와 과 학생회에서 각각 할 수 있는 것들(기획관에 맞게 어떤 부분은 어느 단대, 어느 과가 책임지고 준비하여 참여하면 좋겠다는 식으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하자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획서를 만듭니다.

- 계획서가 나오면 먼저 여학일꾼들 속에서 공유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 그리고 대의체계를 타면서 여학생회의 대중사업을 해설해야 합니다. 중앙 운영위, 단대 운영위에서 대중사업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학생회 체계를 타고 여성문화제에 대한 합의와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단대 간담회와 과간담회를 조직하면서, 여성문화제를 얘기하고 과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학우들의 참신한 고민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위에서 여성문화제와 관련된 주제를 마련합니다. 여

성문화제와 여성주간을 따로 합니다. 여성문화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번같이 과대체제 통한 의의와 과대체제를 준비해 주길 -10-

→ 기획대회의 필요를 강조하십시오.

여성대학에서 많은 학부생들을 모아들이기 위한 기획대회를 2주에서 3주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서 2주까지 중시하여 독여부 학부생들을 설득하는 것(리더, 리어)

- 준비단을 대중적으로 꾸려봅시다.

참신한 고민들로 기획안이 만들어지면 대중적으로 준비단을 꾸립시다.

학우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창조적으로 자보선전도 하고 강의실 선전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행사에 기획대회를
꾸려주세요.

3) <아리랑>

-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에서 제출

4) <6·15 민족통일대축전>

-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에서 제출. 더욱 구체적인 것은 추후 제출

5) 모범총화사업

여러 대학에서는 조직사상운동이나 대중투쟁과 사업에서 갖가지 모범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과적으로 총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조직사상운동과 대중투쟁과 사업 등에서 숨어있는 작은 모범들까지도 총화해서 일반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사업과 투쟁에 있어서의 모범총화를 일정한 틀거리를 가지고 월말에 한번 진행할 것입니다.

모범총화에 있어서는 결과 뿐만 아니라 그 모범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왜 가능했는지 등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총화할 것입니다.

모범총화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모범총화의 틀거리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VIII. 시기별 목표와 총화 방도

1시기 : 전여대협 40일 비상 계획서가 제출된 직후 ~ 전여대협 출범식까지

[시기적 목표] 40일 비상을 빠르게 결의하고 준비하는 시기

전여대협 40일 비상 계획서를 빠르게 토론하고, 단위별 40일 비상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단위별 40일 비상 계획서에 따라 모든 여학일꾼들은 40일 비상에 임하는 결의서를 작성하고 단위내에서 공유합니다.

노동성을 계기로 '주5일 근무제'를 종자로 하여 여성노동권과 관련한 의식화를 진행합니다.

[총화방도] 전여대협 출범식에서의 40일 비상 결의대회

각 대학별 40일 비상 계획서를 통신총화합니다.

모든 여학일꾼들의 40일 비상 결의서를 단위별로 서로 공유하고 40일 비상 계획 점검표를 만듭니다.

2시기 : 전여대협 출범식 직후 ~ 5월 중여학생회 핵심사업까지

[시기적 목표]

<아리랑> 관람사업의 폭과 깊이를 한층 상승시켜내는 시기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

총여학생회 대중사업을 중심으로 반성폭력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내는 시기

조직적, 개인적 비상을 전개하는 시기

과간담회와 대의체계를 통한 의조직화, 준비단 등의 구성 및 활동으로 대중조직다운 모범을 창출하는 시기

여성의 정치세력화 투쟁을 준비하는 시기

- <아리랑> 관람단 조직화

- <6·15 민족통일대축전 여성준비위>를 대학별로 건설하고, 여성단체와의 연대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별 여성준비위 건설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61500 여학우 선언운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천활동을 시작합니다.

- 총여학생회 대중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과/단대/총학생회 대중사업이나 체육대회를 계기로 하여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풀어냅니다.

- <전국 대학생 성인식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진행합니다.

- 조직적, 개인적 비상을 심없이 전개합니다.

- 과간담회, 중앙운영위·단대운영위를 통한 의조직화, 준비단 등의 구성 및 활동, 소모임 발동 등으로 총여 대중사업을 만들어갑니다.

-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여대협 계획을 바탕으로 단위별로 토론을 가져가고, 대학의 활동방향과 계획을 내어줍니다.

- 5월초 평양에서의 '위안부'문제 관련 포럼을 계기로 선전의식화를 진행합니다.

[총화방도]

- 매일 단위별 활동총화서를 전여대협 홈페이지에 통신총화합니다. (하루 활동계획,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정도, 성과,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야)

- 단위별로 2시기의 모범일꾼을 뽑고 모범일꾼의 구체적인 모범적 활동 내용을 통신총화합니다.

3시기 : ~ <6·15 민족통일대축전>까지

[시기적 목표]

<아리랑> 관람사업을 실질화시켜내는 시기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투쟁을 더욱 왕성한 실천투쟁으로 다그치는 시기

2차 <전국 대학생 성인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반성폭력운동을 진행하는 시기

조직적, 개인적 비상을 더욱 다그치는 시기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는 시기

- <아리랑> 관람사업을 실질화시켜냅니다.

-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61500 여학우 선언운동>을 더욱 전면적으로 조직하면서, 일정한 실천활동을 가열차게 진행합니다.

- <전국 대학생 성인식 설문조사>를 2차적으로 진행하고, 반성폭력 운동의 장기적인 전망 수립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을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과 반성폭력 운동에 결합시켜 진행합니다.

- 미스코리아대회, 월드컵 등을 계기로 반성폭력 운동과 기타 투쟁에 대해 선전의식화를 진행합니다.

- 반성폭력 학칙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대학별 토론을 가져가고 카페에 총화합니다.

[총화방도] <6·15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총화

- 매일 단위별 활동총화서를 전여대협 홈페이지에 통신총화합니다. (하루 활동계획,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정도, 성과,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야)

- 단위별로 3시기의 모범일꾼을 뽑고 모범일꾼의 구체적인 모범적 활동 내용을 통신총화합니다.

(※ 여름농활은 여름농활 계획서에서 따로 제출할 것입니다. 여름농활 계획서가 제출되고 나면 그에 맞게 대학에서는 단위 40일 비상계획에 결합시켜 여름농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학생들이 지게를 켜고 모두 다 평등한 세상을 위해 여기 다 모이자

-전여대협 출범식 기획안

모범 :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반응 : 여학생회 모든 일꾼들

용도 : 전여대협 출범식을 대중적으로 만들어가기위하여

1. 들어가며

전여대협 기운수련회로 시작했던 2002년이 벌써 1/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해보다 높은 정세의 요구, 민중의요구에 의해 두달이나 빨리 진행되었던 전여대협 총회, 3월 개강을 맞이하며 3.8 세계여성의날, 3.13 수요집회, 한총련 대의원대회 등 월세없이 달려왔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출범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금 1년의 총적방향을 되새겨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놓여져있는 아리랑 축전관련, 6.15 민족통일대축전, 7.15 남북여성통일대회부터 시작해서 반성폭력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쳐야할 요구성, 여성노동권 확보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2002년 8기 전여대협이 만들어야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출범식을 시작으로 그 비약적 준비를 다그쳐 달려갑시다.

여학생들의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모두 다 평등한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 모여 힘차게 달려갑시다!

8월간의 힘찬 준비로 성대한 전여대협 출범식을 만들어갑시다!

2. 전여대협 출범식 의의와 목표

- 1) 전여대협이 1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출범을 선포한다
- 2) 아리랑 축전 관람 준비와 6.15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 결성하고 선포한다
- 3) 양대선거와 관련된 전여대협의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 토론한다
- 4) 기간 8기 전여대협 사업과 투쟁을 총화하고 단위별 모범을 총화한다
- 5) 5.6월 사업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이후 사업과 투쟁을 결의한다.

3. 전여대협 출범식 행사

4월 오전 10시

시흥 시민과 함께하는 마당사업

4월 오후 3시

전여대협 출범식

-여학생회·소모임 뽀내기 마당

-아리랑 축전 관람단 모집 결의대회

6.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 결성

8기 전여대협 출범 및 의장 옹립

4월 7시

40일의 비상 핵심여학일군 결의대회

4. 구체적 행사내용

1) 4월 오전 10시 - 시흥 시민과 함께하는 마당사업

시간 :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장소 : 삼계역(서울산업대에서 걸어서 20분거리 지하철역) 주변

내용 : 1마당 - 여성들의 힘으로 통일된 세상을 만들자!

(아리랑 축전 홍보,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 7.15 남북여성통일대회에 대해)

2마당 - 반성폭력의 세상을 만들자!

(반성폭력에 대한 콩트 및 율동, 발언. 그 외 반가부장제 투쟁내용에 대해)

주변 부대행사 진행

2) 4월 오후 3시 - 전여대협 출범식 본마당

시간 :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장소 : 서울산업대에서

내용 : 여학생회·소모임 뽀내기 마당 - 지역별 1개대학정도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신청할 대학은 5월 1일까지 전여대협 홈페이지로 내용과 형식(극, 노래, 율동 등)을 총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축전 관람단 모집 결의대회 - 아리랑 축전 관람을 하기로 결정한 학우, 단위 또는 관람을 결의하고 있는 학우, 단위의 결의발언과 전여대협의 결의내용입니다

6.15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 결성 -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하기위한 전여대협 준비위를 결성하는 장입니다

8기 전여대협 출범 및 의장 옹립 - 8기 전여대협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장을 옹립하는 장입니다.

3) 4월 오후 7시 - 40일의 비상 핵심여학일군 결의대회

시간 :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장소 : 서울산업대에서

내용 : 양대선거관련 강연 및 토론

40일의 비상 5.6월 사업계획 발제 및 토론

40일 비상 결의

5. 학교에서는 이렇게 준비하자

1) 40일 비상을 결의하자

40일의 비상 5.6월 사업계획을 꼭 숙지하고 단위별로 토론을 거쳐 개인과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출범식에 와야합니다. 출범식이 끝나는 5월 6일부터 비상이 시작되기에 때문에 출범식전까지 40일비상을 꼭 결의하고 단위별 목표를 세우고 와야합니다. 2002년 우리가 해야할 몫들을 다하기 위해서 40일비상을 결의합시다!

2) 여학생회,소모임 뽀내기 마당 준비

내용은 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의 내용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단위에서 기간 진행하였던 사업과 투쟁의 모범을 총화하는 자리로 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소모임을 만들어 소모임에 속해있는 새내기들과 함께 모임을 진행하고 그것을 학우들에게 알려내는 모범이 있다면 소모임 새내기들과 내용을 잡아 그것을 극으로 또는 노래로, 율동으로 형상화합니다. 다시한번 새내기들을 조직하고 학교에서부터 전여대협 출범식을 함께 한다는 맘으로 준비해봅시다.

3) 아리랑 축전 관람단 모집

아리랑 축전은 단순한 관람이 아닙니다. 민족대단결의 의지를 드높여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틀어쥐어 7천만 거래의 대동의 장입니다. 이 의의에 맞게 여학생회에서도 준비를 해야합니다. 학교 전체 차원에서 모집된다면 그것과 함께 결합되어 진행하고 그렇지않다면 여학생회 자체에서 준비를 합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진행하든지 여학생회 자체의 목표와 계획을 짜야합니다. 예를 들어 여학생회에서는 두명을 보내겠다. 언제 보낼것이며 대중적 홍보와 모집사업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목표입니다. 영남대 총여학생회에서는 한총련 대의원대회 기간 과여학생부장들과 함께 바닷그림그리기와 주막을 진행하면서 아리랑을 알려내고 그 비용도 대중적으로 모금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5.6월 사업계획서 참조)

4) 6.15축전 준비위를 꾸리자

6.15 민족통일대축전은 올해에 있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중요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시기 학교별 지역별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마련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범식에서 전여대협 준비위를 꾸리면서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에 큰 발걸음을 시작해야할것입니다.(5.6월 사업계획서 참조)

5) 양대선거에 대한 토론 논의를 진행하자

지자체 선거가 6월 13일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 단위에서는 뭔가 해야할데 라는 고민이상으로 놓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대선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후 양대선거에 임하는 전여대협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야할 것입니다.

6) 지역별 대표자회의, 학교별 총여운영위 또는 총여회의에서 꼭 공유하고 빠르게 조직적으로 준비하자

출범식이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빠르게 조직적으로 알려내야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지역별 대표자회의속에서 그리고 학교별 총여학생회 운영위 또는 회의에서 빠르게 공유하고 계획을 짜들어가면서 준비해야할것입니다.

7) 서울산업대를 전여대협 선전내용으로 도배하자!

서울 산업대에 여학생회가 없는 관계로 학우들에게 더 많이 의식화해야합니다. 꼭 대학별 1개프랑을 써서 오도록 합시다. 출범식 성사

서울산업대 학생회

전여대협 준비위

전여대협 준비위 "지자체선거"

016-211-6216

대통령 1년 전여대협 투쟁방향내용으로 해서 5월 2일까지 최대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3일 가지고 올라와서 부족하도록 합시다.

6. 의식화 내용

-> 기본 내용은 전여대협 총노선을 참조하고 출범식 기획안과 40일의 비상 5,6월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진행합니다.

- 1) 반성록의 운동에 대하여
- 2) 여성노동권 확보에 대하여
- 3) 아리랑 축전에 대하여
- 4) 6.15 민주통일대축전 여성준비위에 대하여
- 5) 기간 자기단위에서 진행했던 사업과 투쟁에 대하여

7. 조직화

1) 기간 총여학생회 부리에 묶였던 모든 학우들 조직화
2002년 들어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총여학생회를 알고 함께하였던 모든 학우들에게 전화연락 메일연락을 하면서 조직화합니다.

2) 뽕대기 마당에 함께 할 세대기나 학우들 조직화
뽕대기 마당에 함께 하자는 내용으로 세대기와 학우들을 조직화해서 출범식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3) 아리랑 관람단으로 모집된 학우들 조직화
아리랑 관람을 결의하고 있거나 또는 결의할수 있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조직화합니다

4) 소모임, 여학일군들 기본적 참가
소모임의 성과가 많이 있는 만큼 전여대협 출범식에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학일군들이 함께 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5) 전여대협 출범식으로 학생회일군들 조직화-여학우간부들 최대한 조직화
전여대협 출범식이 진행되는 둘째날은 부문마당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학생회일군들을 최대한 조직화하지 않으면 전여대협출범식에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운영위, 단대운영위 등 대의체계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조직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여대협 50만여원에 포함되는 학생회 여학우간부들을 최대한 조직화하도록 합니다. 개별적으로도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하도록 합니다

8. 흐름

- 14일 28일 (일요일)까지
 - 40일의 비상 5,6월 사업계획서 토론 및 목표,계획 세우기
 - 출범식 기획안 토론 및 대학계획 세우기
 - 뽕대기마당 내용결정, 함께할 학우들 조직화
 - 아리랑과 6.15에 대한 준비계획세우기
 - 의식화 내용으로 학교 내 선선물 마련하기
 - 포스터 학교도착
- 24일 29,30일까지
 - 40일의 비상 5,6월 사업계획서 단위마다 목표와 계획을 여학생회실에 부착하기
 - 출범식 구체적 내용진행 및 구체적 조직화
 - 뽕대기 마당 맹연습 돌입
 - 아리랑과 6.15에 대해 학우들에게 알려내기
 - 포스터 학교도착 및 학교내 선선물 부착
- 35일 1,2일
 - 대적벽 최종점검

18일(10시)까지의 준비를 마무리한다,

선전거리 만들기

-창조적인 선전으로 학우들을 의식화 하자!

1. 내용(대학별로 분공합시다)

- ▷여자를, 남자를 사고판다고? 성매매 근절하자! - 7월 7일 (3)
 - 군산 화재사건으로 본 성매매, 청소년성매매 신상공개를 보며, 성매매 이렇게 근절하자 등
 - ▷이제는 제발 해결하자. 일본군위안부 문제! - 7월 6
 - 일본군 위안부 문제란, 일본의 뻔뻔한 모습, 기간 투쟁의 과정, 우리의 요구 등
 - ▷호주제는 철폐되어야한다. - 7월 6일 6
 - 호주제는 무엇인가, 다른나라 호주제 철폐 사례, 호주제로 인한 피해 등
 - ▷밥, 꽃, 양 -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6
 - 여성노동자들의 현실, 작년올해에 이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등
 - ▷여성들은 전쟁을 반대한다! 6
 - 전쟁시 여성이 받는 피해, 기간 전쟁동안 여성피해 사례, 전쟁반대 여성단체들의 투쟁 등
 - ▷6.15공동선언 이행해온 여성들의 발자취 - 7월 6
 - 공동선언이 여성에게 가지는 의미, 2001년 6.15 토론회참가, 2001년 평양축전 참가, 계속되는 여성들의 움직임 등
 - ▷이제 성폭력에서 자유로워지자! 6
 - 성폭력이란 뭘까?, 성폭력의 종류, 사례, 우리 이렇게 하자 등
 - ▷전여대협이란 무엇일까? 6
 - 전여대협 역사 소개, 3문 3답, 올해 전여대협 의장님 소개 등 - 7월 6
- #기본은 설명에 사진과 만화 모형물, 설문지를 덧붙여 창조적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형사... 5/1 7월 6일

문예단조직화

- 서울지역에서 10명정도를 조직화한다
- 전여대협 출범식 본관과 마당사업의 문예물을 준비한다
- 4월 27일 첫모임 진행

경안에서도 조직화 해 보자!

5/23/26